

##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서류심사의평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신청자는 1,838명이었다. 서울(56.5%)과 경기(24%) 지역 예술인들의 신청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장르별로는 미술(35.5%)과 연극(21.4%), 음악(12.2%) 등의 순서로 높았다. 서류심사는 신청자들이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협업적 실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기업·기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신청 예술인들의 기존 작품 활동 및 프로젝트 운영 경험과 활동계획의 적절성 그리고 지원 서류 작성의 성실성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신청자들이 워낙 많아 모두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서류심의를 진행했고, 785명의 면접 심의 대상 예술인을 선정했다.

심의위원들은 4년차를 맞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서류심의를 진행하면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각 기업·기관에서 퍼실리테이터를 비롯해 타 장르 예술인들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활동하려는 의지와, 예술인 개인이 갖고 있는 예술적 재능을 통한 예술적 개입 전략을 그려내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 점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일종의 사회참여예술(Socially Engaged Art)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파악했다. 지난 3년간 양적 확산에 치중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이제 새로운 질적 성숙과 심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2명의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유경험 예술인들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눈으로 서류심의에 임했다. 특히 1~3년간의 기존 활동 경험에 대해 전혀 기술하지 않거나, 기존 활동에 대한 자기 성찰이 부재한 제안서의 경우 기존의 활동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유경험자의 경우 참여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별도의 양식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재단 측에서 적극 검토하고 시행했으면 한다. 또 좋은 의지의 계획서라도 카운터 파트너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서도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콜센터 감정도동자 등 최근 이슈가 된 사건에 집중해 계획서를 서술한 신청서 중,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했다.

미술 분야의 그룹에서는 한 사람의 예술인으로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당위와 예술적 개입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려내는 뛰어난 제안서를 만나기가 어려웠다. 특히 예술인 개인의 작업 계획을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것처럼 서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회적이고 긍정적인 뉘앙스의 문장을 쓴다고 예술적 개입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퍼실리테이터 서류심의에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혹은 일부만 수정해 내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미술 장르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으나 레지던시 참여 경험이 소통 경험이고 협력의 경험이라고 강조하는 서류도 많았고, 자신은 전시를 많이 한 편이어서 소통과 협력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세 명의 심의위원들은 그런 단순한 연결의 도식은 상투적인 견해라고 판단했다.

미술 분야의 그룹 제안서의 특징 중 하나는 레지던시 참여의 당위성을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 ‘슬픈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국에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만들어졌지만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아 예술인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낮은 곳에서 레지던시 활동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활동 두 가지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신청자들이 활동계획서에 구체적인 예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동물윤리와 감정노동자에 관한 제안들이었다. 많은 신청자들이 유기동물 관련 활동 계획을 사회적 개입이라고 쉽게 정의내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감정노동자에 관한 계획서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기술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체로 그런 기획서들은 정형화되고 형식적인 예시로써만 언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사업 초기 3년간은 사업의 실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정착되고 안정화되는 과정에 접어들었다. 지원받고 활동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더 이상 설 자리는 없다.

미술·영화·만화·건축·사진 분야의 그룹에서는 세 명의 심의위원들 간에 큰 이견은 없었다. 각자가 보는 관점에서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획안의 진정성과 예술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견이 있는 몇몇 지원자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진행했다. 미술·영화·만화·건축·사진 분야의 서류심의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은 스스로의 자기 고민과 문제의식 없이 지원한 예술인들이 많고, 예술 행위를 하지 않는 예술가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다. 매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도 기존 계획서와 변별력 없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원자들의 제안서 간에 특별한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 예술인들의 심화된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라 판단된다. 면접 심의에서는 진짜 예술인으로서의 진정성을 갖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작가들이 선정되기를 희망한다.

연극·무용 분야의 그룹에서는 기업의 문제를 상징할 때 최근 이슈가 된 사건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다. 1백여 명의 지원자가 콜센터 여고생 자살 사건의 경우를 언급하며 감정노동자 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 콜센터에서 직접 파트타임으로 근무 중인 지원자도 다수 있었고,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콜센터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고충을 긴 시간 직접 보고 느낀 지원자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추상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제안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또 하나 예술인 본인의 자기 경험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안이 없어 아쉬웠다. 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적 접근은 자신의 언어와 철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적실성 여부를 집중 검토했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 자신의 이야기나 주변에서 문제의식을 찾은 경우, 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성찰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면접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지향성을 고민하지 않고, 자기 작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의에 임했다. 4년차를 맞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방법론을 고집하는 제안서는 협업 능력에서 감정 대상이 되었음을 밝힌다. 예술의 역할/가능성으로 기업·기관의 변화를 이야기할 경우 그 근거가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하고자 했다. 특히 연극인들을 비롯해 많은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향수기회 부족, 소통 부재, 이주 문제, 경쟁적 환경, 업무 스트레스,

부끄러움, 엔포세대, 분노조절 장애, 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 문화융성까지 다양한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역할극, 낭독공연, 신체 움직임 등 상투화된 제안들을 제안한 사례들이 많아 아쉬웠다.

문학·음악·국악·대중예술 분야의 그룹에서는 문학과 대중예술 부문 예술인들의 제안서가 비교적 우수한 편이었다. 음악과 국악 부문 제안서는 단순한 문화 나눔 위주의 공연과 연주 활동을 제안하는 등 상투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았다. 문학·음악·국악·대중예술 분야의 서류심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전반적으로 참여예술인들의 자기 기획 능력과 더불어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의미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작가적 진정성을 가진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면접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했다.

기존 성과사례집을 자기 고민 없이 그대로 복사해 제출하는 경우, 기존 활동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고민이 생략된 경우, 기업·기관 등에서 단순히 교육 위주의 활동을 제안한 경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추상적이고 나열적인 활동을 제시한 경우,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진 공동체 활동과 도시재생 활동을 제안한 경우, 특정 기업·기관을 염두에 두고 제안서를 작성한 경우 등등, 이런 제안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심의에 임했음을 밝힌다. 제안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 또한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측면에서 감점 요인이 되어 선정에서 제외했다. 예술인으로서 자기 콘텐츠만을 고집하는 경우 또한 협업적 활동을 위주로 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참여예술인 선정에서 ‘변별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8년에는 정책사업 활동 유경험자와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투트랙의 지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특히 사업 유경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단순한 창작준비금 제도로 오인하고 복지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활동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 문제가 크다. 이에 대해 재단 측에서 정책사업의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시급히 새로운 대안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매년 연속지원을 받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 여부 또한 정책사업의 형평성 차원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한다. 이 문제는 결국 4년차를 맞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새로운 질적 심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크 베르츠바흐는 “창조성이란 경제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신적 과정”라고 말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예술인들에게 창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신적 과정의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경험이 예술인들에게 소중한 예술적 경험으로 작용하고, 삶을 살아가고 예술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